

1

부품·소재산업 왜 중요한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 부품·소재산업이 이끈다

글_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부 교수 leejd@snu.ac.kr

부 품·소재산업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산업발전이 본격화된 이래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우리 경제에 있어 부품·소재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부품·소재산업과 관련한 국가통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 정책담당분야가 독립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법)이 존재하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선진국들에서는 없는 일들이다. 정책 대상으로서 분리 독립되어 있는 '부품·소재산업'이라는 개념 역시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출액의 42%, 무역흑자의 51%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고부가 서비

스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들도 제조업의 결과물에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약한 국가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부품·소재산업은 바로 이 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산업이다.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38.0%, 고용의 46.3%(2003년) 부가가치의 52.1%(200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교역의 측면에서도 2004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총수출액의 42.5%, 무역흑자의 51.8%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생성되고 있는 중요한 제조기술의 4개 중 3개는 부품·소재와 관련된 것이며, 현재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휴대폰, 자동차 등에서는 부품의 기술적 수준이 곧 완제

품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실정이다. 기술적 파급의 측면에서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품·소재 산업은 비부품·소재 제조업에 비해 약 2.7배수의 산업들에 기술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또 3배수의 산업들로부터 기술 파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출된 기술의 확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품·소재 부문의 중요성은 경제 발전 이론 관점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조립제조산업을 중심으로 경사(傾斜) 성장을 꾀하면서 고도성장을 한 개발도상국은 모두 핵심부품·소재 부문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 시장여건이나 국제 분업체제상의 역학관계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와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중국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을 이웃에 두고 있고, 화교경제권이 글로벌 수

요자로서 뒷받침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소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차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핵심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소위 저성장균형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영원한 중진국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 미흡에 미래는 불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이 당면한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다. 부품·소재산업의 외화기득률은 2000년까지 5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벌어들이 외화의 상당 부분이 다시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단순 가공 무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수입 거래에 의한 생산유발 효과가 유달리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들어서도 일본에 대비한 부품·소재품목의 평균 수출단가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품·소재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이 그만큼 열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평균 수출단가는 우리 나라의 70~80% 수준에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 개별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부품·소재기업들이 중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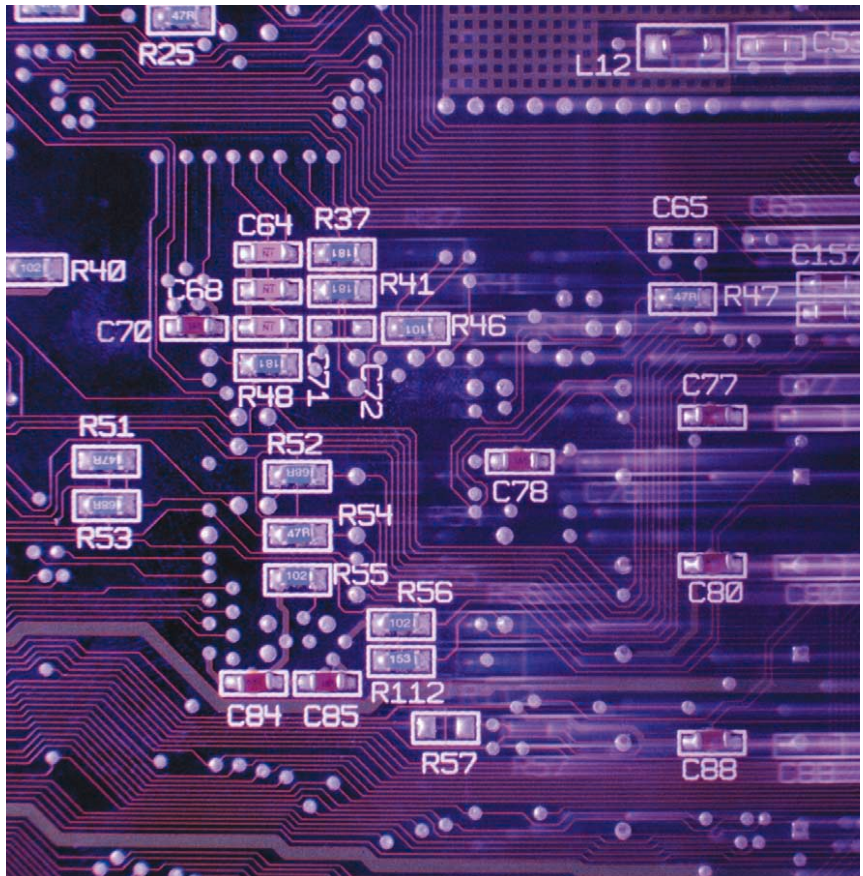
업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혁신 역량과 경험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매출액 규모로 500억 원에서 4천억 원대에 해당하는 소위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율이 0.7~1.1%대에 머물러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표본조사결과, 부품·소재 기업의 약 3/4 정도가 전혀 혁신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산업의 미래 또한 그리 밝지 않다.

비록 위와 같은 몇몇 거시적 통계에서 부정적인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만도 상반기까지 1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

이다. 생산현장에서 첨단부품을 자체개발하고, 선진국 첨단수요기업에까지 납품하고 있는 성공적인 부품·소재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기술 추격과 한·일 FTA 시대의 도래 등 여러 가지 도전의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의 기술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이 명운을 걸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원해온 정부정책의 결실이기도 하다.

핵심 고부가 부품·소재 집중적으로 키워야

오늘날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여러 도전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수



명주기가 단축되면서 부품개체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 주기에 걸쳐 개발에 성공해 납품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새로운 주기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모듈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국제적으로 기술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개도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소싱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존의 비용경쟁력보다 기술에서도 빠르게 추격해와 이미 눈앞에 다가온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부품·소재기업들이 가진 미약한 혁신역량과 주변에서 조성되고 있는 위협요인들을 두루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실천하는 데 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산업의 국가경제적 비중이 막대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중대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경쟁력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이라는 이슈에는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의 문제, 중소기업 육성방안, 핵심 기술분야 설정 등 국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한 의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처방 역시 복합적인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국가적 중지를 모아 가는데 있어 기억되어야 할 점들은 부품·소재산업으로서의 고유한 문제의식에 천착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다.


부품·소재산업내의 많은 기업들이 중

소기업이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중소기업 육성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핵심 고부가 부품·소재를 키워나가겠다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그 주체가 중소기업든 대학이든, 연구소든, 대기업이든 혹은 이들의 연합체인든 지원과 격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품·소재에 특화된 문제의식으로서 수직기업간 연계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수직기업간 건강한 네트워크의 문제는 공정거래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연구협력 개발의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문제도 발달된 민간부문의 선별능력을 활용하고, 자발적 감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심분 고려하여 전략적 부품·소재개발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수요대기업-부품·소재기업간 연계 연구활동을 진흥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진력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중장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지원에 더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의 실용화자금을 공급한다면 중핵기업의 핵심 품목 중심 집중성장을 추가로 견인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자본참여를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요기업의 편익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정책적 사안들은 특별법이

제정, 실천된 이래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고, 정책적 행동으로 반영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에 발맞추어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스스로도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비교적 안정된 납품선을 확보하고 1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핵급 기업들에서 보다 도전적인 혁신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미래의 블루오션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조립회사인 'GM'이 위기에 처하자 이거대한 수요기업에 의존하던 자동차부품회사 '델파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수요기업이 영원히 먹여살려 주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요기업들은 디자인과 마케팅만이 제품차별화의 요소가 아니며, 경쟁력 있는 새로운 부품이 유지가능한 차별화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품·소재 육성에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부품·소재산업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진경제란 요원하다는 점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처방 역시 오늘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원인이 있을수록 꾸준히 노선을 바꾸지 않고 노력을 지속해가는 것이 해법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는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생산성학회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다.